

삼국유사 에 보이는 '신중'에 대한 고찰

Examination of the 'sinjung ()' in Samguk - Yusa

저자 (Authors)	전해주 Hae Ju Jeon
출처 (Source)	불교학보 37 , 2000.12, 59-76(18 pages) BUL GYO HAK BO 37 , 2000.12, 59-76(18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280
APA Style	전해주 (2000). 삼국유사 에 보이는 '신중'에 대한 고찰. 불교학보, 37, 59-7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7 09: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에 보이는 ‘神衆’에 대한 고찰

全 海 住

序 言

- I. 『三國遺事』에 보이는 諸神의 部類
- II. 釋帝桓因과 檀君神

III. 巫俗的 諸神과 습합된 神衆

IV. 華嚴聖衆

結 語

序 言

古代 韓國人의 ‘神’ 또는 ‘神衆’에 대한 섬김과 이해는 高麗時代 一然(1206 - 1289)이 編纂한 『三國遺事』에 잘 담겨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는 檀君의 開國부터 統一新羅 時代까지의 野史를 佛敎說話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三國 또는 四國時代와 통일신라시대에 한국인이 믿었던 神들은 그 시대의 神들만이 아니라, 檀君이래 一然이 살았던 高麗 時代까지 전해 내려온 韓民族의 傳統的인 神들의 모습이라 하겠다. 高麗 太祖의 「訓要十條」¹⁾도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三國遺事』에 출현하는 諸神에는 民俗的인 神, 불교와 習合된 神衆, 그리고 불교 전통적인 華嚴神衆 등이 망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神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衆生들의 輪廻世界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諸神들은 地獄·餓鬼·畜生·修羅·人間·天上界 等²⁾ 六道 世界의 衆生들로 비쳐지면서 人間界를 둘러싸고 많은 사연들을 벌려놓고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에 출현하는 신들을 신중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중이라 함은 神의 무리를 통틀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신의 무리라 할 경우에는 諸神이라 표현하고, 신중은 巫敎的인 제신들 중에서 불교와 習合된 神衆과 『華嚴經』에 출현하는 華嚴聖衆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다. 불교

1)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26年條(『釋註 高麗史』, 卷1, 『世家』, 東亞大 古典研究室, 1965年, 24-26쪽, 譯文 66-69쪽.) 태조가 남긴 유훈인 「訓要十條」가운데 제6조에 五嶽名山 大川 龍神을 섬기는 八關會를 베풀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2) 『三國遺事』 卷4, <義解5, 心地繼祖>에는 三世의 善惡果報의 차별상으로 地獄·餓鬼·畜生·修羅·人·天 등의 六道가 보이며, 諸神들 역시 六道 衆生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와 습합된 護法龍과 같은 護法神들은 다시 華嚴神衆에 포섭된다.

『삼국유사』에 출현하는 신중들은 當時代人들에게 어떻게 비쳐졌으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그리하여 오늘날 어떤 의의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I. 『三國遺事』에 보이는 諸神의 部類

『삼국유사』에서 神들이 출현하는 회수는 총 100회가 넘는다. 『삼국유사』의 神衆에 대하여 살피기 위해, 먼저 『삼국유사』에 보이는 諸神들을 그 출처와 함께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⁴⁾

『三國遺事』〈卷1〉

「紀異」1, 古朝鮮 : 檀君 : 山神, 神雄

第二 南解王 : 鬼神 (世人以巫事鬼神),

奈勿王과 金堤上 : 神母

桃花女 鼻荊郎 : 衆鬼, 諸鬼衆 (善, 惡鬼)

天賜玉帶 : 內帝釋宮 (帝釋天王)

善德王知幾三事 : 四天王寺, 四天王天 (四天王), 忉利天 (忉利天王)

金庾信 : (鬼)神, 護國神, 三神 (女神)

太宗春秋公 : 天神及山川之靈, 槐樹, 夜鬼, 三十三天 (忉利天王)

長春郎, 罷郎 : 魂

〈卷2〉

「紀異」2, 文虎王 法敏 : 四天王寺, 五方神像, 護國大龍

萬波息笛 : 海龍, 眞龍

水路夫人 : 海龍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 五岳, 三山神

讀耆婆郎歌 : 上帝, 天帝

元聖大王 : 北川神, 護國龍

處容歌 望海寺 : 東海龍 (處容), 疫神, (南)山神, 北岳神, 地神, 海神

眞聖女大王, 居隨知 : 西海若 (海神), 老龍

景明王 : 四天王寺 (四天王), 五方神

〈卷3〉

「興法」3, 阿道基羅 : 青帝 (春神)

4) 『三國遺事』, 韓佛全6, pp.245~369. 이병주 역주, 『三國遺事并原文』, 廣曹出版社, 1977.

原宗興法 厭燭滅身 : 神畧

「塔像」4, 遼東城育王塔 : 鬼徒, 神

金官城 娑娑石塔 : 波神

黃龍寺丈六 : 黃龍

黃龍寺九層塔 : 天神, 神人, 護法龍, 鬼神,

興輪寺 壁畫 普賢 : 帝釋

三所 觀音 衆生寺 : 襯衣天似

栢栗寺 : 忉利天(忉利天王)

前後所藏舍利 : (華嚴)神兵, 神, 帝釋宮, 天帝=上帝, 神龍, 天使

彌勒仙花 末尸郎 眞慈師 : 山靈(山神靈), 神仙(彌勒仙花)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 龍天八部, 東海龍

魚山佛影 : 毒龍, 東海魚龍, 五羅刹女, 女龍, 梵天王, 百千梵王, 神祇(天地神明), 惡龍, 大龍王, 諸龍, 龍王,

台山五萬眞身 : 龍, 地神, 40聖(華嚴聖衆), 忉利天神, 淨居天衆, 窟神, 華嚴神衆,

天龍寺 : 護伽藍神

蓋藏寺彌陀殿 : 神衆

<卷4>

「義解」5 圓光西學 : 神鬼(聲, 言), 魔鬼, 狐鬼,

寶壤梨木 : 海龍

歸竺諸師 : 雞神

慈藏定律 : (人)神, (大和)龍

施福不言 : 龍(비유로 谷)

心地繼祖 : 岳神(地獄, 餓鬼, 修羅, 畜生, 人, 天)

<卷5>

「神呪」6 密本摧邪 : 大鬼, 小鬼, 衆鬼, 大力神, 天神,

惠通降龍 : (白甲, 黑甲)神兵, 龍(毒龍 蛟龍), 熊神

明朗神印 : 海龍

「感通」7 仙桃聖好隨喜佛事 : (仙桃山)神母, 諸天神, 六類聖衆 五岳神君

月明師 兜率歌 : 四天王寺, 天地鬼神

善律還生 : 女魂

「避隱」8 朗智乘雲 普賢樹 : 山靈, 山主=辯才天女, 龍(大和池),

緣會逃名 文殊帖 : 辯才天女

包山二聖 : 岳神

永才遇賊 : 地獄

「孝善」9 眞定師孝善雙美 : 泥黎(地獄)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 天神. 鬼

『삼국유사』 5권의 총 139條 가운데 52條에 神들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내용상 諸神들과 관련되는 조항은 더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신들의 부류와 그 출현 회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신이 여러번 언급되더라도 같은 條에서는 한 번만 회수로 산정한 것임>⁵⁾

檀君1

華嚴神衆7 : 華嚴神兵2. 華嚴聖衆2. 天龍八部1. 神衆1. 六類聖衆1

天王16 : 四天王<寺>4. 忉利王·三十三天3 梵天王2. 淨居天王1. 上帝·帝釋6.

天女4 : 辯才天女2. 天使2

龍23 : 海龍7. 護國龍·護法龍4. 女龍1. 惡龍·毒龍3. 龍6. 龍王2.

諸神34 : 山神=岳神11. 天神5. 地神2. 海神2. 波神1. 五方神2. 女神1. 神母2.

雞神. 熊神1. 春神1. 神仙1. 窟神1. 大力神1. 川神1. 護伽藍神1.

鬼神, 其他22: 羅刹女1. 鬼神(狐鬼等)10. 疫神1. 雜鬼6. 魂1. 女魂1. 地獄2.

여기서 檀君은 天神으로 나오고 천신중에 帝釋으로 불리며, 帝釋天王은 華嚴神衆의 한 部類이기도 하다. 龍 또한 龍神이며 天龍八部로서 화엄신중에 들기도 한다. 이처럼 諸神은 반드시 위의 분류중 한 곳에만 소속되는 것은 아니나, 편의상 부류에 따라 위와 같이 나누어본 것이다. 그 등장하는 성격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II. 釋帝桓因과 檀君神

위의 諸神들은 그 역할에 따라 다시 몇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다. 『삼국유사』에 출현하는 신으로 제일 먼저 釋帝桓因과 檀君神을 주목하게 된다. 檀君에 대해서는 오늘날 여러 가지 理解가 엇갈려 심각한 宗教葛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現 『中學校 國史』교과서⁶⁾에는 『삼국유사』에 의거하여 단군이 만주 요령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방에서 군장이 다스리는 많은 부족들을 통합하여 고조선을 건국(기원전 2333)하였다고 실려있다. 환인(하느님)의 아들 桓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비,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부하들을 거느

5) 『三國遺事 索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에 의하면 龍이 55회, 天帝釋이 13회 등장하는 등 신들의 출현 회수가 더 많다. 여기서는 같은 조항에서는 같은 신이 여러 번 언급되더라도 그 회수를 한 번만 산정한 것이다.

6)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上, 교육부, 2000년, p.24.

리고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를 건설하고, 곡식, 생명, 병, 형벌 등 인간생활의 360여 가지의 일을 맡아보며 나라를 다스렸다. 그때 꿈이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꿈을 여자로 변하게 하고, 그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 단군 왕검은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고조선이라 하였다고 한다. 즉,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단군 왕검[人]이 천신 환웅[天]과 땅의 웅녀[地] 사이에서 태어났고,⁷⁾ 弘益人間⁸⁾의 건국이념으로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건국한 開國 始祖로 받들려 온 것이다. 단군은 『삼국유사』에서 神의 부류로 묘사되고 있다. 檀君王儉은 천신 桓因의 庶子인 桓雄의 아들인 神人⁹⁾으로서 古朝鮮을 개국하여 治國하다가 후에 山神이 되었으니 壽가 1908歲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단군은 불교와 습합된 존재로 보이니 그것은 桓因이 불교의 제석천왕과 동일시되어 신앙되었기 때문이다.

一然是 '桓因謂帝釋也' <卷1, 紀異1, 古朝鮮>라 하여 환인을 제석이라 부르고 있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했던 고려시대까지 환인은 이미 불교에서 말하는 천제석 즉 제석천왕으로 숭상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제석천왕은 欲界 六天의 하나인 忉利天의 天王이다. 도리천에는 33天이 있고 33天의 한가운데 있는 궁전이 제석천궁이다. 제석은 인도에서 33천의 제왕이라는 인드라신으로서 사나운 악신인 아수라들과의 전쟁에서 끝내 승리를 거두는 정의의 선신으로 모셔지고 있다.¹⁰⁾ 도리천왕인 제석천왕은 『화엄경』에 출현하는 신중의 한 부류로 포섭되어 있으며,¹¹⁾ 제석천 궁전의 보배그물망인 인드라망은 帝網이라 하여 화엄세계를 비유하는, 華嚴教學에 있어서 주요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인드라망경계문은 重重無盡의 相入 境界를 드러내는 화엄 十玄門의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환인이 불교의 제석으로 불리기까지 『삼국유사』에 표현된 천제석의 성격을 보면, 제석천왕은 도리천의 아래에 있는 육계 제1천인 사왕천의 사천왕을 거느리며,¹²⁾ 그 사천왕은 또 용왕과 귀신 무리들을 부리면서 인간세계를 감찰하

- 7) 李恩奉, 『韓國古代宗教思想』, 集文堂, 1984, 에서는 한국의 고대 宗教現象에서 신들의 기능과 성격을 천신과 지신과 인신의 3개 타입으로 구명하고 그 신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 8)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교육부, 2000년) 235쪽에서는 홍익인간이란 사람이 사는 세상인 사회를 크게 이롭게 한다는 것으로서, 홍익인간의 실천을 360가지 일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이란 경제 생명 사회복지 사회정의 등 현실적 삶의 여러 영역의 이상적 완성을 도모한 실천적 목표라고 보고 있다.
- 9) 琴章泰, 『儒敎思想과 宗教文化』, 서울대출판부, 1997, 初版2刷, pp.80-82.
- 10) 高翊晉, 『韓國古代佛敎思想史』,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9, p.12 p.59 그 외에도 『華嚴經』「賢首品」, 大正藏9, P.439쪽과 『法界圖記叢書錄』下1, 轉佛全6, pp.822下~823上 에서도 海印三昧의 비유로 제석천왕의 궁대와 아수라의 싸움이 묘사되어 있다. <全海住, 『義湘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3, pp.150-151.>
- 11) 『八十華嚴』「世主妙嚴品」, 大正藏10, p.4 『六十華嚴』, 「世間淨眼品」, 大正藏9, p.396.
- 12) 『三國遺事』卷1, 紀異1, 善德王知幾三事條에도 사천왕위에 도리천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제27대 선덕여왕 덕만은 치국한지 16년동안에 豫知한 일이 세 가지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왕이 무병할 때에 군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년 모월일에 죽을 터이니 나를 도리천중에 묻으라” 하였다. 어디냐고 물으니 狼山 남쪽이라 하였다. 왕이 돌아가자 낭산 남쪽에 제사지냈더니, 10여 년 후에 文虎大王이 사천왕사를 왕릉아래에 세웠다. 불경에 사천왕천의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으니 비로소 대왕의 靈聖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설화이다.

는 신이며,¹³⁾ 佛國으로서의 신라를 수호하는 守護天神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예를 들면 신라 眞平王은 新羅 三寶의 하나인 玉帶를 內帝釋宮의 天帝로부터 받았고 <『三國遺事』卷1, 紀異1, 天賜玉帶>, 삼국통일의 신라 명장인 金庾信은 33天의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며 死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천신이 되어 신라를 수호한다고 믿었다.<卷1, 紀異1, 太宗春秋公> 義湘(625-702)의 제자로서 화엄가였던 表訓 대덕이 천제에게 오르내리다가 天氣를 누설한다고 다시는 다니지 말라고 경고받은 설화<卷2, 紀異2, 讀書婆郎歌>는 천제석이 인간계와 구별되는 천신의 초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천제석은 호국신으로서 민족통일을 이루고 국운이 번창하도록 도와주고 있다.¹⁵⁾ 표훈 역시 억지로 景德王의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요청하다가 上帝에게 경고받은 것이다. 억지로 얻은 아들로 인해 자칫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석천은 巫敎의 ‘하늘 입’의 신앙을 계승하여 불교의 제석천 체계로 수용되었는데, 이는 密敎的인 방향에서도 수용되고 있다.¹⁶⁾

그런가하면 제석천왕은 불법의 弘通을 돕고 있으며 특히 화엄의 유포를 크게 돕고 있다. 興輪寺 壁畫普賢條[卷3 塔像4]도 그것을 말해준다. 즉, 제석은 흥륜사의 중창을 크게 도왔으며, 그래서 그 절의 두 僧이 천제의 얼굴을 그려 모시고 싶다고 하였으나 천제는 자신의 원력이 보현보살보다 못하다면서 보현보살의 畫像을 그려 모시도록 하였던 것이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함께 『화엄경』에 출현하는 二大 보살이다. 보현보살은 『화엄경』에서 주로 佛과 覺에 관한 내용에 대한 說主이고,¹⁷⁾ 『화엄경』의 불국장엄을 의미하는 一乘菩薩道를 대표하는 普賢願行的 주인공이다. 제석천왕인 도리천왕을 신앙하였음은 백률사의 설화[卷3, 塔像4]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이처럼 불교적 제석천왕은 인간의 吉凶禍福을 마음대로 규정하는 신이 아니라 善業을 짓도록 도우며 三寶를 도와 佛法을 옹호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신중이며 화엄성중인 것이다.

Ⅲ. 巫俗的 諸神과 습합된 神衆

『삼국유사』에는 巫俗的이고 民俗的인 諸神들이 많이 나온다. 환인과 환웅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단군 역시 諸神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단군은 한

13) 曹溪宗의 지방승가대학 1학년 때 배우는 履歷科目인 『緇門警訓』에는 “一米七斤”이라 하여 쌀알 한 톨의 무게가 7근이나 된다는 언급이 있는데, 사찰에서는 만약 쌀을 씻다가 흘러거나 밥알을 버리면 그것이 다 썩을 때까지 제석천왕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므로 버린 사람의 복이 감해진다고 하면서 조심하도록 훈계해왔다.

14) 李恩奉, 앞의 책, p.78.

15) 위의 책, p.79.

16) 이 점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피기로 한다.

17) 海住, 『화엄의 세계』, 민족사, 1998, p.30.

국인의 始祖神이며 神人으로서 숭상되었고 환인은 불교의 제석과 동일하게 신앙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제석천왕은 화엄성중의 한 부류이기도하다. 『삼국유사』에는 이 외에 많은 신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善神과 惡神으로 大別되며 善神들은 또한 佛敎와 習合된 모습을 보인다. 惡神들은 疫神·魔鬼·雜鬼·小鬼·大鬼 等の 鬼神들과 毒龍·惡龍들로서 人間을 해치려함에 대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여 이기는 龍神들을 포함한 善神들이 보인다.

고구려의 南解王은 次次雄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무당이라는 뜻으로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므로 그를 畏敬하여 慈充 즉 차차웅이라 하였다고 한다.<卷1, 紀異1, 第二南解王> 고대인들이 귀신들을 즐겨 섬겼던 것은 善神들의 영험에 의하여 악귀를 물리쳐 재앙을 없애고 복을 얻기 위해서이다. 세속적인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神鬼들이 길흉화복을 규제하는 자로 여겨졌으며, 神鬼들을 정성스러이 받들어 모심으로써 복을 받는 것으로 여겼다. 신이한 영험을 願求하는 방법으로 무속적인 주술을 외우기도 하였다.¹⁸⁾

『삼국유사』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악귀를 물리치는 예가 많이 나온다. 무속적으로 선신에 의해 악신을 쫓기도 하지만,¹⁹⁾ 밀교적 주술과 讀經 수행에 의해 雜鬼를 물리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密本摧邪<卷5, 神呪6>의 설화를 들 수 있다.

善德王 德曼이 병으로 오래 고생할 때 흥륜사의 法揚에게 병을 고치게 하였으나 효험이 없었으므로, 密本法師를 대궐로 불러들여 『藥師經』을 읽게 하였다. 經을 읽자마자 六環杖이 침실안으로 날라가서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적을 찢러 뜯 아래로 내던졌다. 그러자 왕의 병이 나았으며 일본의 머리위에 오색의 신광이 비치어 모두 놀랐다.

그리고 승상 金良圖가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붙고 몸이 굳어져 말을 못하고 몸을 쓰지 못하였다. 그런데 양도의 눈에 한 大鬼가 小鬼를 거느리고 와서 집안의 음식물을 맛보는데, 무당이 와서 제사지내면 귀신 무리가 모이어서 다투어 모욕하는 것이 보였다. 양도가 물러가도록 하려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양도의 부모가 法流寺의 僧을 청하여 轉經하게 하였는데 대귀의 명령을 받은 소귀가 철퇴로 僧의 머리를 내려치니 피를 토하고 죽었다. 수일 후에 밀본법사를 청해 오게 하였는데 밀본이 오게 되었다는 말만 듣고도 귀신들은 실색하였다. 그런데 대귀가 오만하여 피하지 않고 큰소리치자, 四方에서 무장한 大力神이 나타나 귀신들을 결박하여 가고 무수한 천신이 둘러서서 기다렸다. 그 때 밀본이 와서 경을 펴기도 전에 양도의 병이 나아서 그동안의 사실을 자세히 말하였다.

18) 김영태, 『삼국시대 불교신앙연구』, 불광출판부, 1990, p.32.

19) 『三國遺事』卷1, 紀異1의 桃花女鼻荊郎條에는 鼻荊이 귀신의 무리를 데리고 놀며 귀신들을 부러 다리를 놓기도 하고 잠귀를 물리치기도 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처럼 『삼국유사』에는 사람을 해치는 귀신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사람을 도와주는 선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귀신이 護國神으로서 김유신을 돕는 것이라든지(卷1, 紀異1, 金庾信), 산신들과 천신들이 왕이 되게 도와주는 등이다.²⁰⁾ 그들은 때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²¹⁾

선신들 중에는 온전히 불교적으로 攝化되어 僧侶의 수행을 돕고 佛事를 도와 불교가 크게 유통되게 함도 전하고 있다. 金大城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은 다음과 같은 설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金大城이 사냥을 좋아하여 하루는 旻舍山에 올라가서 곰을 잡고 산밑 마을에서 유숙하였다.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하여 시비해 말하되, “어찌서 나를 죽였느냐. 내가 환생하여 너를 잡아 먹으리라”고 하였다. 대성이 두려워 용서를 빌자, 귀신은 자기를 위하여 佛寺를 세워달라고 하였다. 대성이 맹세하고 꿈을 깨니 땀이 흘러 자리를 적시었다. 그 후로 대성은 사냥을 금하고 곰을 위하여 그 자리에 長壽寺를 세웠다. 그리고 감동되는 바 있어 悲願이 더하여, 現世 부모를 위해 佛國寺를 짓고 前生의 부모를 위해 石佛寺를 세우고, 神琳과 표훈 두 스님을 청하여 각각 거주하게 하였다.²³⁾

그러면 무속적인 귀신이 어떻게 불교로 攝化되어 갔는가?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설화로서는 圓光西學(卷4, 義解5)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이 길지만 소개해 보기로 한다.

원광이 三岐山에서 홀로 조용하게 수도하고 있었을 때이다. 어느 날 밤 원광이 誦經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 원광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행을 잘한다고 칭찬하고는, 이웃 비구의 주술수업이 얻는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남의 正念을 방해하고, 그 처소가 다니는 길을 방해하므로 미운 마음이 날 정도라 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데로 옮겨가게 말해달라고 하였다. 이튿날 원광이 그 비구에게 귀신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 비구는 오히려 수행자가 어찌 여우귀신의 말을 근심하느냐면서 듣지 않았다. 밤중에 벼락치는 소리가 났는데 이튿날 가보니 산이 무너져 그 비구가 살던 절을

20) 五嶽 三山の 山神들이 現身하여 조정에서 王을 모시다. <卷2, 紀異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元聖大王이 北川神에게 제사지냄으로써 복천신이 도와 王이 되게 하다.<卷2, 紀異2, 元聖大王>

21) 山神 地神들이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예고해준다. 귀신이 울면서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고 하더니 땅속으로 들어갔다.<卷1, 紀異1, 太宗春秋公> 憲康王의 御前에서 南山神 北岳神 地神 등이 나와 춤을 추어 나라가 망할 것을 경계하다.<卷2, 紀異2, 處容歌 望海寺>

22) “古傳에 의하면 阿育王이 귀신무리를 명하여 인구 9억인이 사는 곳마다 탑하나씩을 세우게하여 이와같이 하여 罔부계내에 팔만사천을 세워 巨石중에 감추어 두었다”고 하는 요동성유왕탑(卷3, 塔像4)의 설화도 있으며, 眞智王대의 홍륜사 승 진자가 미륵상에 기도한 덕으로 미륵선화를 만나는데 도와준 이가 노인으로 변한 산신령이라는 설화(卷3, 塔像4, 彌勒仙花 末尸郎 眞慈師) 등 많은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있다.

23) 卷5, 孝善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묻어버렸다. 귀신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자신은 나이가 3000세나 되며 신술이 最莊하여 집 한 채 묻어버리는 정도는 작은 일이니 놀랄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래의 일과 천하의 일을 통달치 못함이 없다고 하면서 원광에게 비록 自利行은 있으나 利他の 功은 없으니 중국에 가서 불법을 배워와서 이 나라의 혼미한 무리들을 제도함이 어떻겠느냐고 권하였다. 원광은 그 귀신의 도움으로 구법의 뜻을 이루고 11년 후에 귀국하였다. 그는 전에 머물던 三岐山으로 가서 신에게 감사하였는데 귀신은 자기도 또한 제를 받아 세세생생에 서로 제도할 약속을 맺고 싶다고 하였다. 원광의 청에 의해 그 모습의 일부를 나타내 보인 귀신은 아무리 신력이 있는 몸이나 무상한 해(死)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머지않아 그 몸을 고개에 버릴 것이니 가는 혼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원광이 때를 맞춰 가보니 새까만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다가 죽었다.

이 이야기에서 3000년 묵은 여우 귀신을 신라 재래의 土俗的인 神으로 본다면, 그 토속신이 비구의 修呪를 싫어하고 또 그 신력이 비구의 呪術力을 능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그 귀신이 誦經 수행한 원광을 돕고 오히려 受戒하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토속신앙의 불교에로의 귀의를 엿볼 수가 있으며, 아울러 신라의 토속신앙이 처음에는 불교의 神呪에 거부적 반응을 보였던 것을 설화로 나타낸 것이라고 간주된다.²⁴⁾ 魚山佛影條<卷3, 塔像4>에는 용왕과 나찰녀가 오체투지하고 佛에게 戒를 받기를 구하니, 佛은 그들에게 3歸5戒를 설법하였음이 언급되고 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다섯 나찰이 女龍으로 화하여 毒龍과 交通할 때 갖가지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므로 天地神明에게 제사지내고 기도하여도 영험이 없었다가 드디어 부처님에게 教化되어 귀의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는 天神·地神·山神·五方神 등의 諸神과 귀신들이 인간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류는 단연 龍神들이니, 龍은 23회(색인, 총55회)나 등장하고 있다.

龍에도 악용이 있어 사람을 해치는 사례가 없지 않으니, 聖德王때 純貞公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도중에 점심을 먹던 차, 홀연히 海龍이 나타나 부인을 끌고 바다속으로 들어갔다<卷2, 紀異2, 水路夫人>는 등이다. 神術로 독용을 쫓는 설화도 있다. 즉, 惠通이 입당하여 무의삼장의 천거로 당나라 공주의 병을 치료하게 되었으니, 혜통은 敎旨를 받고 別居하여 白豆 一斗를 은그릇에 담으니 변하여 白甲神兵이 되고, 다시 흑두 일두를 금그릇에 담으니 黑甲神兵으로 변하였다. 二色의 神兵이 병마를 쫓으니 홀연히 蛟龍이 나와 달아나고 병이 나왔다. 용은 혜통이 자기를 쫓은 것을 원망하여 본국 신라에 와서 인명을 해침이 심하였다. 혜통

24) 김영태, 앞의 책, p.71.

이 귀국하여 그 독용을 쫓아버렸다는 것이다. <卷5, 神呪6, 惠通降龍>

그러나 대부분의 용은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 나라의 위기를 모면케 해주는 호국용으로 나오고 있다.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용의 설화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명한 처용에 관한 설화<卷2, 紀異2, 處容歌 望海寺>가 있다.

제49대 헌강대왕이 동해용을 위해 절을 세우니 동해용이 아들 처용을 보내 정사를 보좌하게 하였다. 疫神이 처용의 아내를 흠모하여 범하려 함을 보고, 처용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나갔다. 그 노래(處容歌)는 “동경 밝은 달에 밤새워(밤새워) 노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라리(다리) 네히어라.(넋이어라) 둘은 내해이고 둘은 뉘해이고, 본디 내해다만은 뺏겼으니 어찌하리꼬”이다. 역신이 감동하여 그 후로는 처용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邪鬼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였다. 왕이 용을 위하여 다시 절을 세우고 望海寺 또는 新房寺라고 하였다.²⁵⁾

그리고 신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준다고 하여 중요시되는 黃龍寺九層塔과 萬波息笛의 설화 또한 호국용과 관련되어 널리 회자되고 있다.²⁶⁾

慈藏이 中國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太和池邊을 지나다가 神人을 만났다. 그 신인이 자장에게 말하기를, 신라의 왕이 여왕이라서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어 이웃나라가 침범하려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黃龍寺 護法龍이 곧 나의 長子로서 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 그 절에 구층탑을 세우고 팔관회를 배플면 외적이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卷3, 塔像4, 黃龍寺九層塔>

제31대 神文王이 돌아가신 아버지 문무대왕을 위하여 感恩寺를 지었다. 어느날 利見臺에 가서 浮山을 보니 한줄기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들이 되고 밤에는 하나가 되었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검은 玉帶를 받들고 와서 영접하였다. 왕이 용에게 산과 대가 흑 나누어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는 까닭을 물었다. 용이 말하기를, 비유하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없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으니 대라는 나무는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 성왕이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상서로운 징조라 하고 그 대를 취하여 저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이라 하였

25) 이병주 역주, 앞의 책, p.257.

26) 다음과 같은 청도 운문사의 옛절 작감사의 창건설화에도 호법용의 원이 서려있다. “寶壤이 대국에서 법을 傳受하고 돌아올 때 서해중에서 용이 그를 궁중으로 맞아들어 경을 영송하고 金羅袈裟 한 벌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 瞶目과 함께 돌아가게 하면서 본국 龍岬에 절을 짓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면 수년이 못되어 불법을 보호하는 현군이 나와 삼국을 平定할 것이라고 하였다. 작감에 절을 지어 작감사라 하였다.” <卷4, 義解5, 寶壤梨木>

다. 그리고 왕의 先考(父)가 海中 大龍이 되고 김유신이 다시 천신이 되어 二聖이 同心하여 이 無價의 大寶를 내어 갖다 바치게 한 것이라 하였다. 그 대로 저를 만들어 만파식적이라 하고 국보로 삼았으니, 저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물 때는 비오고 비올 때는 개이며,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도 평정하여 졌다. <卷2, 紀異2, 萬波息笛>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治病의 방법에 있어서는 밀교적인 방법으로 神呪를 외우기도 한다. 신주가 주술적인 힘을 가진 점에 있어서는 비불교적인 일반 주문과 같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불교의 신주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佛菩薩의 자비원력에 힘입은 불가사의한 작용이므로 이를 眞言이라고 한다.²⁷⁾ 그러한 신이로 음 역시 神龍과 관련되어 있다. 文虎王 法敏條<卷2, 紀異2>에 보면, 의상이 唐에서 돌아와 唐이 新羅를 侵攻할 것을 알리자, 왕이 매우 염려하여 군신을 모아 방어책을 물었다. 角干 金天尊이 근래에 明朗法師가 용궁에 들어가 秘法을 배워 왔다고 추천하였다. 명랑은 狼山 남쪽에 神遊林이 있으니 그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때 唐兵이 이미 신라의 海上을 순회한다고 하므로, 비단으로 짚을 꾸미고 풀로 五方神像을 만들고는 명랑을 우두머리로 하여 瑜伽加明僧 12인이 文豆婁秘法을 지었다. 그때 唐軍과 신라병이 교전하기 전에 풍랑이 사납게 일어나 당나라 배가 모두 물에 침몰하였다. 그 후에 짚을 고쳐짓고 사천왕사라 하니 지금까지 壇席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²⁸⁾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佛教와 접합된 용은 무엇보다도 護法龍이다. 위 설화에 서처럼 밀교와 신병이 연계되어 전하고도 있으나, 밀교의 신병 역시 호법신중에 포섭된다. 명랑은 밀교적 수행과 신술로 신중의 도움을 받아 국난을 타개한 주인공으로서 明朗神人의 설화²⁹⁾ 역시 호법용과 관련되어 있다. 龍은 천룡팔부로서 佛教의 護法神衆가운데 한 部類이기도 하다. 護法龍들은 黃龍寺丈六說話³⁰⁾에 보이는 것처럼 나라를 守護하고 佛法을 崇尚하여 佛法을 流通시키는데 絶對的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호법용으로서의 龍王은 화엄신중에 포함되어 천룡팔부로서 그 역할을 해내는 모습으로까지 발전해 있다. 무교신의 불교적 섭화에 밀교의 영향이 컸던 것 못지

27) 김영태, 앞의 책, p.32.

28) 제 54대 景明王 7년 10월에 이 사천왕사 五方神의 활줄이 모두 끊어졌음도 전하고 있다. <卷2, 紀異2, 景明王> 나라의 위기를 알리는 설화임을 알 수 있다.

29) 金光寺 本記에 의하면, 明朗은 당에 건너가 도를 배우고 돌아올 때 海龍의 청에 의하여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황금 千兩을 시주받아 지하를 잠행하여 자기집 우물밑으로 솟아나왔다. 이에 집을 회사하여 짚을 세우고 용왕이 시주한 황금으로 탑상을 장식하였더니 광채가 특히 빛났으므로 금광사라 하였다고 한다. <卷5, 神呪6, 明朗神人>

30) 신라 제 24대 진흥왕 14년에 새로 대궐을 용궁 남쪽에 지으려할 때 거기에 황룡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절로 고쳐서 황룡사라 하고 17년만에 완성하였다. 얼마후 이 황룡사에 신라삼보에 속하는 장육존상이 모셔졌고 구층탑이 세워졌다. <卷3, 塔像4, 黃龍寺丈六>

않게 화엄사상의 영향이 지대함을 볼 수 있으니, 地神과 같은 諸神의 불교적 습합으로 불교의 토착화를 이루게 한 新羅佛緣國土說의 전개도 화엄사상의 영향이다.³¹⁾ 호법용의 변신 또한 華嚴聖衆의 모습으로 화엄에 섭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IV. 華嚴聖衆

『삼국유사』에 보이는 제신들은 위와같이 무교적으로 또는 대부분 불교에 섭화되어 인간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지키는 護國神이며 護國龍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는 女龍·神母等 女神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화엄경』에 출현하는 화엄성중으로서의 신중의 모습과 역할 역시 괄목할 만하다.

新羅統一期 前부터 韓國에서 크게 유통되어 온 『華嚴經』에는 39類의 華嚴聖衆과 보현보살 대중을 포함한 40部類의 世主들이 나온다. 오늘날 한국에서 신중들은 화엄성중으로 불리고 있으며, 화엄신앙 만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불교신앙의 한 모습으로 신중신앙이 성행되고 있다. 신중들은 언제나 부처님을 모시고 佛法을 擁護하며 부처님 제자들을 두호하는 분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찰에는 上壇·中壇·下壇의 3壇이 모셔지고 있는데 中壇은 화엄신중을 모시는 곳으로서 神衆壇이라 명명되고 있다. 신중단은 상단 옆에 나란히 모셔지거나 상단과 한 법당에 함께 모셔진다. 그리고 예불시 항상 상단 다음으로 예경되니, 새벽예불 때에는 상단·중단·하단의 순으로, 저녁 예불 때에는 하단·상단·중단의 순으로 예경되고 있는 것이다. 중단의 공양물도 언제나 상단의 마지를 退供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불교에 있어서 신중들은 불교와 불자들을 외호하는 분으로 받들리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의례집인 『釋門儀範』에는 39類 화엄성중과 104位 신중의 예참문이 소개되고 있다.³²⁾ 39류에서 104위 신중으로 그 수가 늘어난 것은 한국에서 예로부터 신앙되어 온 제신들이 불교와 습합되어 화엄성중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9류 화엄성중은 『화엄경』에 청법대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執金剛神·身衆神·足行神·道場神·主城身·主地神·主山神·主林神·主藥神·主稼神·主河神·主海神·主水神·主火神·主風神·主空神·主方神·主夜神·主晝神·阿修羅王·光音天王·迦樓羅王·緊那羅王·摩睺羅伽王·夜叉王·龍王·鳩躡茶王·乾闥婆王·月天子·日天子·忉利天王·夜摩天王·菟率天王·化樂天王·他化自在天

31) 高翊晉, 앞의 책, p.66. 해주, 『불교교리강좌』, 불광출판부, 1993, pp.164~168.

32) 安震湖 篇, 『釋門儀範』 「신중단작법」, 法輪寺, 1982, pp.221~242. 전해주, 「화엄경약찬게에 대한 고찰」, 釋林論叢 31, 동국대 석림회, 佛紀2541, p.92.

33) 『八十華嚴』, 「世主妙嚴品」, 大正藏10, pp.2~21.

王·大摩天王·光音天王·遍淨天王·廣藁天王·大自在天王들로서 모두 해탈문을 성취한 분들이다.³³⁾ 그들은 수많은眷屬들과 함께 華嚴會上으로 모여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자신의 解脫境界만큼 偈頌으로 찬탄하고 있으며, 화엄수행의 全階位와 연계하여 이해되고 있다. 화엄성중은 實鬼神이 아니니, 神衆請에는 그들이 釋迦牟尼 부처님의 化現³⁴⁾이라고 일컫고 있다.

『三國遺事』에는 그러한 『화엄경』에 출현하는 華嚴聖衆들의 모습도 보인다. 즉 四王天·忉利天·三十三天等の 諸天王도 화엄성중에 속한 부류이며, 天龍八部·神兵·40聖衆·道場神·華嚴神衆 등으로 出現하여 信仰되고 있다. 『法華經』 靈山會上에도 天龍八部·乾達婆·阿修羅 등 神의 群集이 있으며, 다른 大乘經典에도 神衆이 出現하기는 하나 『三國遺事』의 神衆들은 거의 다 華嚴神衆임을 알 수 있다.

화엄신중이 출현하는 대표적인 설화를 관련된 부분만 시대별로 소개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 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

『山中古傳』을 인용하여 자장법사가 五臺山을 眞聖의 住處라 하였다고 전한다. 자장이 중국 오대산 문수진신을 친견하고자 貞觀10年(636)에 入唐하여 태화지변의 石文殊에게 기도하여 꿈에 梵偈를 받았다. 이튿날 異僧이 와서 그 계송이 『화엄경』 4句偈임을 알려주고 가사와 佛鉢 그리고 佛頭骨 一片을 주면서 본국 오대산에 一萬文殊가 常住하니 가서 보라고 하며 사라졌다. 태화지의 용이 現身하여 자장이 만난 법사가 眞文殊임을 알려주고 절을 짓고 탑을 세울 것을 부탁하였다.

지금의 오대산 月精寺는 자장이 신라에 돌아온 후 문수친견을 위해 머물렀던 곳이다. 그리고 이어서 寶川 태자가 이 오대산 神聖窟에 들어가 50년 동안 수행하였는데 도리천신과 淨居天의 무리와 40聖이 항상 호위하였다. 보천이 五萬眞身을 모시다가 임종시에 후일 산중에서 행할 바 국가를 도울 행사를 기록하여 두었다. 그 중에 寶川庵을 改創하여 華藏寺로하고 圓通毘盧遮那三尊과 大藏經을 봉안하며, 福田 五員을 두어 낮에는 장경을 읽게하고 밤에는 화엄신중을 念하게 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백일동안 華嚴會를 열게하고 法輪社라 이름하며, 이 화장사를 오대산의 본사로 삼으라고 하였다. 또 下院 文殊甲寺를 더해 밤낮으로 화엄신중 禮懺을 하게 하였다.

(나) 卷3 塔像4, 前後所將舍利

『의상전』을 인용하여 의상을 항상 화엄신중이 모시고 다님을 소개하고 있다.

34) 『釋門儀範』, p.346.

즉, 의상법사가 당나라 至相寺의 智儼 처소에서 화엄을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은 終南山에 살고 있는 道宣 律師를 찾아갔다. 도선 율사는 하늘에서 공양을 받고 있었으므로 의상에게 天供을 대접하려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의상이 되돌아가자 그제야 천사가 천공을 갖고 들어왔다. 늦은 이유를 물은 즉, 골짜기에 神兵이 가득해서 뚫고 들어오지 못했는데 방금 신병이 모두 물러가므로 이제야 들어왔다고 했다. 이에 도선이 의상에게 神威가 있음을 알고 그 道의 수승함에 감복하고 그 천공을 그냥 두었다가 다음날 의상과 지엄을 함께 초청하여 대접하였다.

(다) 卷3 塔像4, 洛山二大聖觀音正趣

의상법사가 처음 唐에서 돌아와 이 해변의 窟內에 大悲(觀音)眞身이 머무른다는 말을 듣고 天龍八部와 東海龍의 도움으로 굴 내에 들어가 觀音眞容을 친견한 일과 金堂을 짓고 塑像을 안치하여 낙산사라 함을 전하고 있다.

즉, 옛적에 의상법사가 처음으로 唐에서 돌아와 대비진신이 이 해변굴 안에 산다는 말을 듣고 낙산이라고 이름하고, 齋戒한지 7일만에 座具를 물위에 띄웠더니 천룡팔부 侍從이 굴속으로 인도하였다. 공중을 향하여 參禮하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주었다. 의상이 받아 가지고 물러나니 동해용이 또 여의보주 한알을 바쳤다. 의상이 받들고 나와 다시 재계하기 7일 만에 들어가 진용을 보았다. 진신이 이르기를, 座上 山頂에 쌍 죽이 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의상이 듣고 굴을 나오니 과연 대가 솟아 나왔다. 이에 금당을 짓고 소상을 모시니 그 원만하고 고운 형상이 마치 天生한 것과 같았다. 그 대는 없어졌으므로 비로소 그곳이 바로 진신이 머무는 곳을 알고 그 절을 낙산이라 하고, 의상은 그가 받은 두 염주를 聖殿에 두고 떠났다.

(라) 卷5, 避隱 8, 朗智乘雲 普賢樹

智通이 7세 때 영축산 朗智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가던 중 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보현대사에게서 제를 받는다. 남지는 山靈의 陰助로 지통이 출가한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남지 자신은 염원해도 만나지 못한 보현보살에게서 수계받음을 알고 도리어 어린 지통에게 예를 했다고 한다. 山主는 변재천녀라고 전해 온다. (지통은 후에 화엄행자 의상의 제자가 되고, 의상의 『화엄경』 강의를 받아 적은 『智通記』를 남겼다.)

이들 설화에서 화엄신중들의 출현은 신라 통일기의 불교교단과 그 당시 사회상과 관련하여 갖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화엄신중과 관련된 설화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신라통일기를 전후한 무렵의 자장·의상·지통 등 화엄조사들을 도와 화엄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화 (가)는 636년

자장의 입당 당시의 일이고 (나)는 의상이 지엄 아래 지상사에 있었던 661- 668년의 일이며 (다)는 의상의 귀국 직후(671년 이후)의 일이고 (라)는 의상의 제자인 지통과 관련된 일이다.

자장은 한국에서 화엄과 관련된 자로서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인물이다.³⁵⁾ 설화에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生家를 절로 만들어 元寧寺라하고 낙성식때 華嚴萬偈를 설하였으며, 중국 오대산 太和池 가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如是解法性 卽見盧舍那³⁶⁾” 라는 『화엄경』 계송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귀국 후 오대산에 문수도량을 개설하고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太白山에서 다시 한번 문수보살을 만나려하나 결국 문수보살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리하여 한국에 화엄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그 후에 오대산 화엄신앙 특히 화엄신중신앙의 도량을 개설케 한 최초의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敎團의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화엄종이라는 교단적 발전을 이루어간 海東華嚴初祖는 의상이다.

의상은 삼국의 통일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로 어지럽고 피폐했던 갈등의 시기에 圓融 無碍한 華嚴思想 그리고 觀音信仰과 彌陀信仰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화해를 도모하였다. 그러한 의상의 활동에는 天龍八部와 호법용의 도움이 있었으며 華嚴神兵의 호위가 있었던 것이다. 의상은 화엄의 핵심내용을 一乘法界圖로 읊어내면서 우리 모두는 如來가 出現한 존재라는 華嚴性起思想을 闡揚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부처님과 같은 平等한 존재임을 자각하여 葛藤을 화해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 「白華道場發願文」과 「一乘發願文」 등으로 그러한 화엄신앙을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에 의해 깊게 하였다.

의상에게는 四大弟子, 十大弟子 그리고 3000제자들이 있어 의상의 뒤를 이었다. 그 가운데 후에 의상으로부터 法界圖印을 傳受받은 지통이 『화엄경』의 보살행을 대표하는 보현보살과 山靈의 도움으로 출가 수계하게 되었음을 설화는 전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緣會逃名 文殊帖條<卷5, 避隱8>에서도 元聖王代(785-798)의 고승 緣會가 普賢觀行을 닦은 功德으로 문수보살과 辯才天女를 만나 國師가 됨을 전하고 있다. 元聖大王條 <卷2, 紀異2>에서는 그 원성대왕이 北川神에 제사지내 川神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고, 黃龍寺의 승 智海를 대궐로 청해 들어 50일 동안 『화엄경』을 講하게 하였음도 전하고 있다.

천룡팔부를 위시한 화엄의 신중신앙은 계속해서 한국 화엄신앙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오늘날도 많은 불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원을 성취시켜 주는 분으로 신중은 받들려지고 있는 것이다.

35) 해주, 『화엄의 세계』, pp.258~261.

36) 『80華嚴』, 『須彌頂上偈讚品』, 大正藏10, p.82 上.

結 語

이상과 같이 『三國遺事』에 보이는 古代 韓國人들이 믿었던 제신들을 화엄신중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삼국시대는 귀신을 숭배하고 원시적인 祝呪로 이익을 얻기도 하고, 密呪秘法으로 호국안민을 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행득도에 의한 법력으로 중생을 이익케 하고 나라를 수호하기도 하였다. 그들에게는 신중의 도움이 뒤따랐다.

한국의 시조신으로 받들린 단군과 석제환인 뿐 아니라 勸善懲惡으로 人間과 그들이 사는 山川을 保護하는 神들인 무교적이고 민속적인 선신들은 거의가 佛敎와 습합되어 호국선신으로 모셔졌다. 현실이익과 호국안민만이 아니라 불교를 유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호법용들을 포함한 善神들은 특히 華嚴과 짝합되어 護法神衆으로 모셔졌다. 또 『화엄경』에 출현하는 華嚴聖衆 역시 佛法을 크게 融通시켜 人間을 利益케 하며 나라를 保護하는 神衆들로 출현하고 있다.

그들 화엄신중은 오늘날도 『華嚴經』의 39類 聖衆과 함께 104位의 護法神衆들로 모셔져 信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본 연구는 동국대학 논문게제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Abstract

Examination of the 'Sinjung(神衆)' in *Samguk-Yusa*

Jeon, Hae-ju

The worship and perception of gods or 'Sinjung(神衆: guardians of the Buddha dharma)' in ancient Korea have been well preserved in the *Samguk-Yusa*(三國遺事, *Legends and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compiled by the Koryeo dynasty monk Ilyeon(1206 - 1289). The *Samguk-Yusa* depicts the unofficial historical period of Korea, from its founding by Dan-gun up until the Unified Silla dynasty, through Buddhist legends. The book reveals not only the gods that Koreans believed in of each period during the Three Kingdoms, or Four Kingdoms period, and the Koryeo dynasty, but also the overall traditional view of gods of the Korean people(韓民族), from the time of Dan-gun up until the Koryeo dynasty. The *Hunjosipjo*(訓要十條: Ten Essential Articles of Preservation), written by King Taejo of the Koryeo dynasty, attests to the importance of these traditional gods.

All of the gods that appear in the *Samguk-Yusa* are folk gods, gods which have been integrated from the Buddhist tradition, and traditional Buddhist gods. These gods are entangled in the Buddhist world of *samsara* of sentient beings. All of these gods are portrayed as sentient beings caught in the six realms, or *gati*. The gods in the *Samguk-Yusa* will be divided and examin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is the Dan-gun god. There are many divergent perceptions of Dan-gun today that have created serious religious conflicts. Strictly speaking, Dan-gun is the founder of ancient Joseon and it can be said that he was not a god. However, in the *Samguk-Yusa*, he is depicted as a god. Dan-gun was the son of Hwan-ung, who was the first son of Hwan-in. It is said that Dan-gun founded ancient Joseon and after his rule, he became a mountain god. Dan-gun became associated with Buddhism because it was believed that Hwan-in was the Sakradeva of Buddhism.

Second are the gods originating from a mix of Shamanism and Buddhism(神衆). All of the folk and shamanistic gods are divided into the two major categories of "virtuous gods" and "evil gods," and the virtuous gods are seen to have originated from a mix with Buddhism. There are many virtuous gods and dragon-guardians of the Dharma in the *Samguk-Yusa* who oppose the evil gods, who, in turn, try to bring harm to human beings. There are also female gods who appear in the book. Among these gods, the dragon gods appear the most often. These dragon-guardians of

the Dharma originated from a combination of the Buddhist and Shamanist traditions and represent one of the divisions of gods who are guardians of the Dharma. Dragon-guardians of the Dharma protect the country and revere the Buddhadharmā, and play an indispensable role in spreading the Buddhadharmā.

Third are the traditional Hwaom gods of Buddhism(華嚴神衆). In the Avatamsaka Sutra, which was prevalent in Korea even before the time of the Unified Shilla dynasty, there are 39 types of Hwaom gods. These types of Hwaom gods also appear in the *Samguk-Yusa*. Although gods also appear in other Mahayana Buddhist sutras, the gods appearing in the *Samguk-Yusa* are Hwaom gods.

In this way, the folk gods, in whom Koreans believed in ancient times, protected human beings, and the mountains and rivers they lived in, by rewarding the good and punishing the wicked. Almost all of these gods were taken from Buddhism, especially Hwaom Buddhism, and were revered as gods who guarded the Dharma. As well, the Hwaom gods appear in the *Samguk-Yusa* as gods who widely spread the Buddhadharmā, benefitted human beings and protected the country. Presently, all of these gods, along with the 39 types of guardians of the Hwaom Sutra, form the 104 gods of the Dharma guardians and are worshipped today.